# 서일학보 The Seoil University Press

Monday, November 2, 2026 No.329

• 발행인 최인호 • 주간 민달식 • 편집장 신은선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https://wwwdev.seoil.ac.kr/sites/hakbo/index.do


## 제52회 용마대동제

### RE:BOOT 우리의 청춘을 재부팅하는 순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청춘과 열정이 어우러진 제52회 용마대동제를 진행했다. 'RE:BOOT 우리의 청춘을 재부팅하는 순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수의 초청 공연과 교내 동아리 무대, 학과별 체험 부스 등으로 꾸몄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공연을 즐기고 여러 체험에 참여하며 캠퍼스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용마대동제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엔플라잉(N.Flying) ▲앰퍼샌드원(AMPERS&ONE) ▲이서연 ▲KISS OF LIFE ▲dodree ▲keyveatz ▲NOWIMYOUNG ▲HAON 등이 참여해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무대를 관람하며 환호와 응원으로 화답했고,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축제 현장의 분위기도 한층 고조됐다.

초청 가수뿐만 아니라 교내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도 축제의 주요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치어리딩 동아리 V.I.C는 역동적인 동작과 활기찬 퍼포먼스로 무대를 꾸몄으며, 댄스 동아리 센세이션은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힙합 동아리 더모스트와 밴드 동아리 막내동이 역시 각자의 개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학생들과 호흡했다. 교내 동아리들은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으로 공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NOWIMYOUNG과 HAON의 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두 아티스트의 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으며, 학생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고 축제의 순간을 만끽하는 시간이 됐다.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용마대동제는 마지막 날까지 활기를 이어갔다. 더불어 서일관 위 불꽃놀이를 통해 마지막 가을밤을 장식했다.



▲ 제52회 용마대동제 가수 초청 공연

공연 외에도 학과별로 마련한 여러 부스는 학생들이 축제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했다. 주간 부스에서는 학과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체험 활동을 운영했다. 만화웹툰학과의 페이스페인팅, 비즈니스일본어과의 타코야끼와 메론소다 판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의 키링 제작과 리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학과별 전공 체험과 게임, 먹거리 판매 등이 진행돼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야간에는 푸드 코트와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부동산법률학과와 비즈니스중국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 등 여러 학과가 음식과 음료를 선보였으며, 사회복지학과와 비즈니스영어과 등도 각자의 콘셉트를 살린 부스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는 한편, 부스 주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의 밤을 즐겼다.

주간에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야간에는 먹거리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용마대동제는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캠퍼스 생활의 추억을 쌓는 자리이기도 했다. 학과별 부스는 각 학과의 특색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보여 주는 기회였으며 교내 동아리 공연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해 온 역량을 펼치는 무대가 됐다. 초청 아티스트의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학생들은 평소의 학교 생활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경험할 수 있었다.

'RE:BOOT'라는 주제처럼 이번 용마대동제는 학생들이 청춘의 순간을 새롭게 채우고 서로의 열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무대 위 아티스트와 동아리의 공연, 학과별 부스에서 펼쳐진 다양한 활동은 캠퍼스에 활기를 더했다. 3일간 이어진 축제는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안겨 줬다. 내년 용마대동제에 대한 기대를 높이면서 마무리했다.

이나정 기자 najung071107@gmail.com




## Contents


1 종합면 | 제52회 용마대동제

2 보도면 | 우리 대학, 고교생 취업 준비부터 직무 적응까지 지원

3 보도면 |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7 특집면 | 빼빼로데이의 역사

8 인터뷰면 | 미디어출판학과 학회장 '추윤서', 세무회계학과 학회장 '육재명'


## 알 려 드 립 니 다

- 11월 03일(화) : 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
- 11월 17일(화) : 일반휴학 신청 기간 종료

보도기사



# 고교생 취업 준비부터 직무 적응까지 지원

##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잇따라 운영

우리 대학은 특성화고 및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 면접부터 직무·조직 적응까지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직접 경험하고 실제 채용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습과 현직자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 대학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팀은 지난 9월 2일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채용 면접 상황을 경험하고 직무별 면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 맞춤형 실전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면접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고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면접을 경험하는 실습 중심 방식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이 기업의 면접 평가 기준과 직무별 핵심 평가 요소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실전 면접 역량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먼저 지원 직무별 예상 질문과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직접 구성했다. 이후 실제 면접 상황을 가정한 모의 면접에 참여해 준비한 답변을 적용하고, 이어지는 질문과 압박 질문 등 다양한 상황에 직접 대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 면접 후에는 채용전문가의 1대 1 피드백을 통해 답변의 논리성과 전달 방식, 면접 태도 등을 점검했다. 학생들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로 보완하고 다시 면접 상황에 적용해 보며 자신의 면접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학생 대상 '직무 맞춤형 실전 면접 프로그램' 교육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면접 준비부터 답변 구성, 실전 모의 면접, 피드백까지 면접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실제 채용 면접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는 고교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의 일환이다.

한편,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서울문화고와 연계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직 및 직무적응 지원을 위한 서울북부 청년이루다(I-RuDA)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진로취업지원 수요에 따라 기획·운영됐다. F&B 기업 현직 조직 및 직무 적응 교육담당자를 초빙해 서울문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시행했다. 취업 전 면접 역량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조직생활과 직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역량까지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경영지원·디자인·마케팅 등 여러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 기업 관계자를 초빙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 탐색과 선택,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청(소)년의 안정적 조직 적응과 직무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기획보도 1

# 지역 상생 확대

##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




▲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 현장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의 일상에 다가가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명소를 알리는 안내판 제작부터 홀몸 어르신과 학생들의 문화 체험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면목제3·8동 주민자치회는 용마산 스카이워크를 찾는 방문객들이 주변 지역도 둘러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 앞에 도보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내판 디자인에는 우리 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면목제3·8동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문구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면목동 우체국 ▲사가정시장 ▲사가정공원을 거쳐 스카이워크에 이르는 약 50분 코스를 소개한다. 방문객들이 지역 명소뿐 아니라 시장과 골목 상권도 경험하도록 동선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의 참여는 지역 어르신들과의 교류로도 이어졌다. 면목제3·8동 주민센터는 지난 8월 26일 우리 대학 동아리 '도시락'과 'RCY' 학생들과 함께 홀몸 어르신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어르신과 학생 가족 맺기 사업' 결연식 이후 이어온 만남의 하나로, 학생들과 어르신들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활동은 대학의 디자인 역량을 지역 홍보에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일상적인 교류를 이어갈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연결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표진아 기자 treasureshine29@gmail.com

기획보도 2

# 청년 IT 기업 잇는 디지털 취업캠프

## 청년 인재와 IT 기업의 만남, 취업 기회 확대

우리 대학 체육관에서 서울북부지역 청년 구직자와 IT·디지털 기업을 연결하는 '2026 디지털 신기술 전문인력 맞춤형 취업캠프'가 지난 9월 11일 열렸다. 행사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이수한 청년에게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우능력개발원과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최하고 대우능력개발원과 유니에스가 주관했다.

이번 캠프에는 ▲자율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생성형 AI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풀스택 웹 개발 분야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IT기업 65곳이 참여했다. 이 중 30여 곳은 현장 면접을 진행했고, 나머지는 온라인 면접이나 구인 정보 제공 방식으로 채용에 참여했다. 청년 구직자들은 희망 직무와 보유 기술, 기업별 채용 조건을 토대로 사전 매칭된 기업과 면접을 치렀다. 또한 현장에서 테크블루제닉 한창민 대표가 'AI 시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포트폴리오 점검, 면접 준비 등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받았다.




▲ 2026 디지털 신기술 전문인력 맞춤형 취업캠프 현장면접

우리 대학 최인호 총장직무대행은 "학생들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무역량과 취업 자신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업, 고용노동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준 지청장도 현장 중심 취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최 측은 기업별 면접 결과와 채용 의사를 확인해 추가 심층 면접과 후속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심층보도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계산법,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수당이다. 하지만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부터 계산 방법, 미지급 시 대응 절차까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리즈 순서**

1) 최저임금과 수습 기간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3) 주휴수당 지급 조건
4) 알바의 4대 보험



주휴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법정 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 미지급 상황의 모습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 기간이 4주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근은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 3일씩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8시간 근무하므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 14시간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개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근 여부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근무 일정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실제 일한 시간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는 1주에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4시간분으로 산정되고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주휴수당은 4만 원이다. 다만 지급액은 근무 형태와 소정근로시간,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주에 계속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퇴사 예정자나 단기 근로자도 해당 주의 법정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으로 근무시간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근무일과 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임금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지급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가인 기자 vwv.n00@gmail.com

학생의 목소리

##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6도 뜻깊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내는 사람: 익명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요즘 푹 빠진 노래가 있어 추천합니다. 애쉬 아일랜드의 'OST' 추천합니다!

– 보내는 사람: 익명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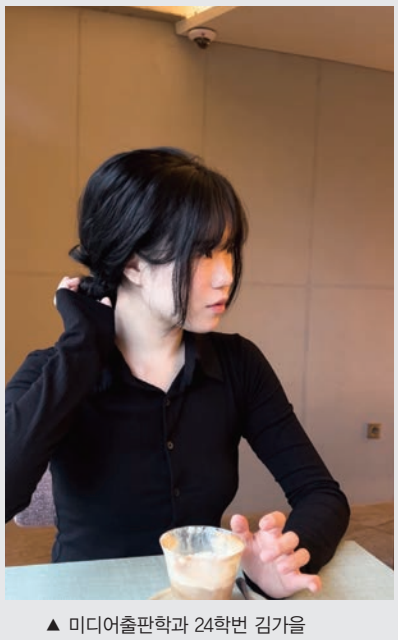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INTERVIEW

## 겨울에도 얼죽아인가요?

저는 얼죽아는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찾게 됩니다.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따뜻한 커피를 마실 계절이 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절과 상관없이 따뜻한 음료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고, 선선한 날에는 따뜻한 커피가 더 생각납니다. 그날 날씨와 기분에 따라 어울리는 음료를 골라 마시고,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음료가 다르다는 점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올겨울에는 뜨아 한 번 드셔 보세요!



▲ 미디어출판학과 24학번 김가을

지역사회

살기좋은 동네 중랑구

# 중랑구, 모두를 위한 무장애 미디어 체험전 개최

## 점자·수어·음성해설 갖춘 미디어전

지난 9월 7일, 중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중랑아트센터에서 무장애 미디어 체험전 '반짝 깜빡 사르르'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26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김김랩과 조세민 작가가 참여해 미디어와 설치,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팝아트 기반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을 중심으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전시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예술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중랑문화재단은 이번 전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뜻깊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는 발달장애인 예술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센터의 미술 프로그램인 '발.자.취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그린 원화를 활용해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기회를 넓히고 대중과의 소통을 돕는 의미 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무장애 미디어 체험전 '반짝 깜빡 사르르' 안내 포스터

또한 중랑구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전시 해설과 각종 연계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전시장 내외부에는 점자 안내와 음성 해설, 쉬운 글 콘텐츠, 촉각 자료 등 다채로운 접근성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와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 누구나 불편함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내년 7월 3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실감미디어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모두에게 열린 문화예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서일소식

# 조교 간담회 통해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실시

우리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는 지난 8월 28일 학과 조교를 대상으로 2026년 1차 조교 간담회 개최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 간담회 현장

이번 간담회는 2학기 시작 전 학과와의 취업 지원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졸업 예정자에게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과 지원 혜택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과 조교를 통해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졸업 전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졸업 이후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간담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와 취업 준비 수준에 맞춘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졸업 예정자와 졸업생에게는 상담, 취업 역량 강화, 일경험 등을 연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고용 서비스를 미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과와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 간 정보의 전달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취업 준비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 관계자는 "2학기 시작 전 학과와 주요 사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졸업 예정자에게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와 지원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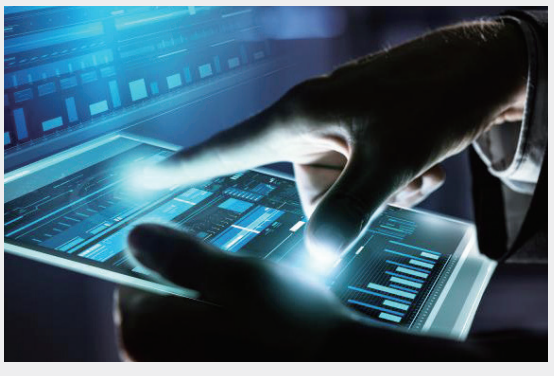
이준호 기자 ydd211112@gmail.com

학과 STORY

# IoT전자공학과

## 사물과 세상을 잇는 전자 기술

우리 대학 IoT전자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컴퓨터 연계 디지털 전자 분야 및 사물인터넷(IoT)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지능화된 사물과 인터넷, 인공지능(AI)이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겸비한 실무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



▲ IoT전자공학과 홈페이지

IoT전자공학과는 스마트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필수 요소인 전자 제어 및 컴퓨터 응용 기술을 교육한다. 학생들은 회로 설계 역량부터 유무선 통신 기술, 센서 및 반도체 응용, IoT 디바이스 제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하드웨어 기초부터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래밍까지 단계별 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실전 감각을 다진다.

재학생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리눅스 마스터 등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공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내장형 시스템 개발 ▲스마트 제어 응용 ▲센서 및 반도체 관련 기업 ▲자동차·항공 등 첨단 IT 융복합 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IoT전자공학과는 탄탄한 전공 지식과 최신 기술 습득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상현 기자 tkdgus1384@gmail.com

사 설

# 공연과 체험으로 뜨겁게 물든 제52회 용마대동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청춘과 열정이 어우러진 제52회 용마대동제를 진행했다. 'RE:BOOT 우리의 청춘을 재부팅하는 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초청 가수 공연과 교내 동아리 무대, 학과별 체험 부스 등으로 꾸몄다. 학생들은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캠퍼스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축제에는 ▲엔플라잉(N.Flying) ▲앰퍼샌드원(AMPERS&ONE) ▲이서연 ▲KISS OF LIFE ▲dodree ▲keyveatz ▲NOWIMYOUNG ▲HAON 등이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특히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NOWIMYOUNG과 HAON의 공연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교내 동아리 공연도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치어리딩 동아리 V.I.C와 댄스 동아리 센세이션은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힙합 동아리 더모스트와 밴드 동아리 막내동이도 각자의 개성을 담은 공연으로 관객들과 호흡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기며 무대에 호응했다.

공연장 밖에서는 학과별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만화웹툰학과의 페이스페인팅, 비즈니스일본어과의 타코야끼와 메론소다 판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의 키링 및 리본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과별 활동에 참여하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다. 야간에는 푸드코트와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음식을 맛보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번 용마대동제는 공연 관람을 넘어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추억을 쌓는 자리였다. 학과별 부스는 각 학과의 개성을 보여 줬으며, 동아리 공연은 학생들이 준비한 실력을 선보이는 기회가 됐다. 'RE'라는 주제처럼 학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청춘의 순간을 만끽했다. 3일간 이어진 축제는 캠퍼스에 활기를 더하며 내년 축제에 대한 기대를 남겼다.

기자칼럼

# AI와 저작권, 공존의 길

문화부 기자 박상현



인공지능(AI) 기술이 창작의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맞붙는 핵심 쟁점은 바로 AI와 저작권의 충돌이다.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작곡하는 시대가 열리자,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 여겼던 창작의 경계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창작자들의 작업물이 무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며 창작 생태계에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저작권의 역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흐름이 읽힌다. 과거 사진 기술이나 디지털 음원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회는 이와 흡사한 우려를 겪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히 창작의 종말이나 권리의 박탈로 흘러가지 않았다. 오히려 사진은 하나의 독립된 예술 분야로 자리 잡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저작권법과 유통 구조가 정착되면서 시장 전체의 규모는 커졌다. 기술이 창작을 없앤 것이 아니라, 창작을 보호하고 소비하는 사회적 합의의 틀을 새로 짠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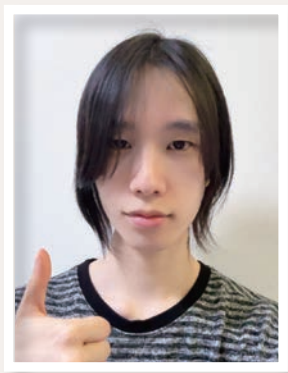
AI와 저작권의 충돌 역시 이러한 과도기적 진통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 겪는 혼란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뒤처져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다. AI 학습에 쓰인 원작자의 권리를 투명하게 인정하는 보상 체계를 세우고, 인간의 기획이 들어간 창작물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결국 본질은 기술을 배척할 것인가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창작 환경에 맞는 공존의 규칙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AI는 인간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위협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 속에서는 창작의 지평을 넓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혼란 속에서 제도를 가다듬고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할 기회 역시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학생칼럼

# 게임에선 다시 시작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다시하기 어려울까?

AI융합컨텐츠학과 정찬영



게임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캐릭터가 쓰러지면 처음부터 새로 도전하거나 저장해 둔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패가 현실만큼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디에서 실수했는지 생각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같은 실패를 겪어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준비했던 일이 잘되지 않았을 때 단순히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시간과 노력, 주변의 시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생각해 보면 게임과 현실의 차이는 실패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인 것 같다. 게임에서는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에서는 실패를 나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전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하지만 게임에서 실패하면서도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갔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현실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실패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임에서는 재도전 버튼이 눈앞에 있지만 현실에는 아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재도전은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해볼 수 있는 선택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면 실패 이후에도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서일만평

# 빼빼로 환상곡



사회문화

#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급증

## 위조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



▲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투여하는 모습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불법 해외 반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청이 통관 검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의 약 4.2배다. 최근 3년간 총 6,223건이 적발됐으며,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인도에서 반입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마다 유효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순물도 검출됐다. 의약품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들은 최종적으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므로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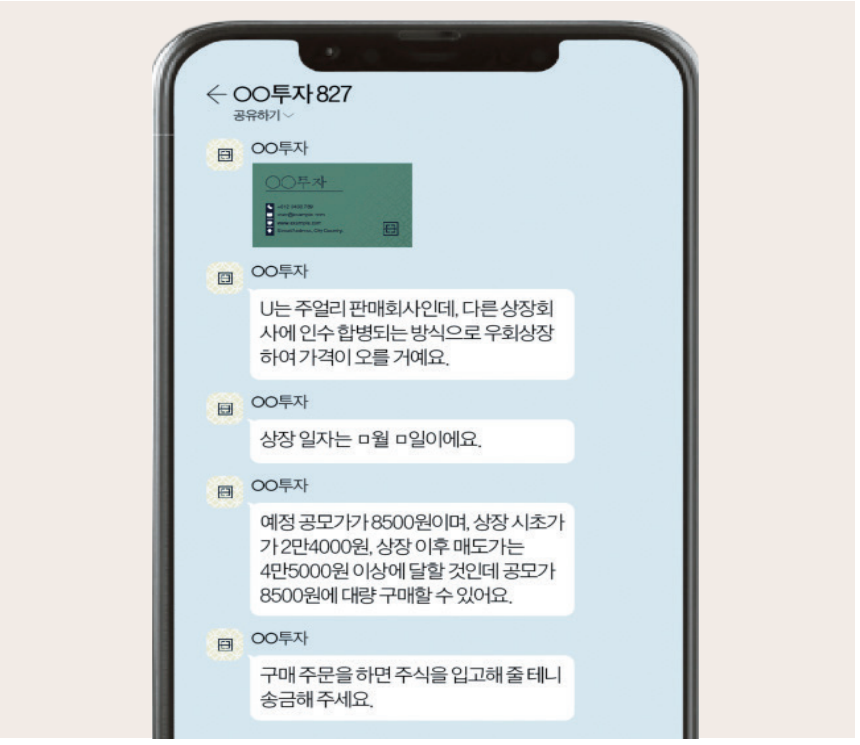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주사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임의로 구매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여행자 휴대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인 기자 vwv.n00@gmail.com

경 제

# SNS 믿었다…투자자 70% 손실 경험

## 쉬운 투자 정보 뒤 숨겨진 위험




▲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가 공유되는 모습

최근 주식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핀플루언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SNS에서 금융 정보나 투자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정보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적인 검증 없이 확산되는 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로 인한 피해도 빈번했다. SNS 투자 조언을 따라 투자한 사람 중 상당수가 손실을 경험했으며,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일부 채널에서 불법 투자 유도와 유명인 사칭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SNS 정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 출처와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특집 1




# 빼빼로데이의 역사

## 학생들의 문화에서 변화된 전국적 기념일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편의점과 마트에는 다양한 빼빼로 상품이 진열되고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연인과 빼빼로를 주고받는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빼빼로데이. 그렇다면 이 날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어떻게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기념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을까.

빼빼로데이는 숫자 1111이 길쭉한 빼빼로의 모양과 닮았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비공식 기념일이다. 시작 배경은 1990년대 초 부산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학생들은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주고받으며 빼빼로처럼 날씬해지자는 의미를 담았고, 이러한 문화는 주변 학생들 사이로 점차 확산됐다.




▲ 1983년 출시 이후 변화해 온 빼빼로 패키지

처음에는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형성된 작은 문화였지만 이후 판매량 증가 현상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기업은 이러한 소비 현상에 주목했고, 11월 11일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롯데제과는 관련 홍보와 행사를 이어갔으며 언론 보도와 유통업계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빼빼로데이는 전국적인 기념일로 알려졌다. 특히 1996년 이후 언론에서 빼빼로데이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졌다. 당시에는 새로운 기념일의 등장에 대한 흥미와 함께 상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보도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과 관심은 결과적으로 빼빼로데이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빼빼로데이는 매년 11월을 대표하는 데이 마케팅 사례로 성장했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가 주로 연인 사이의 선물 문화로 인식됐다면, 빼빼로데이는 친구와 가족,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매년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고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든 빼빼로나 손편지를 준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날을 표현했다.

학교와 대학에서도 빼빼로데이는 하나의 친목 문화로 활용됐다. 동기와 선후배 사이에서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표현하는 계기가 됐고, 일부 학생들은 직접 빼빼로를 만들거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며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인 시선도 함께 나타났다.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중심의 행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념일을 앞두고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점에서 같은 날짜가 가진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빼빼로데이를 단순한 상업 행사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기업이 처음부터 만들어 낸 문화가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 먼저 형성된 문화가 기업 마케팅과 결합해 확산됐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를 상품 구매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빼빼로데이를 보내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비싼 선물을 주고받기보다 직접 만든 빼빼로나 짧은 메시지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려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학생 사이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빼빼로데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소비 행사를 넘어 개인의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념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선물 자체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경험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작은 문화에서 시작된 빼빼로데이는 사회와 기업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소비 문화라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기념일의 가치는 무엇을 주고받는지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에 있다. 빼빼로데이는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며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일학보사 홈페이지: 기사제보함
인스타그램: @seoil_press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특집 2

# 입동의 의미와 풍습

##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와 이웃을 잇는 전통

입동은 '겨울이 들어선다'라는 뜻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24절기 중 하나다. 24절기 가운데 19번째 절기로 상강과 소설 사이에 들며, 양력으로는 보통 11월 7일 또는 8일 무렵이다. 입춘·입하·입추와 함께 계절의 시작을 뜻하는 네 절기에 속한다.

농경사회에서 입동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농가에서는 땔감을 마련하고 채소를 저장했으며, 메주를 쓰고 시래기를 말렸다. 솜옷과 누비옷을 만들거나 초가집 지붕의 이엉을 새로 잇는 등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도 이어졌다.

입동을 대표하는 풍습으로는 김장이 있다.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은 배추와 무가 얼기 전인 입동 전후에 하는 것이 적기로 여겨졌다. 김장은 식량을 저장하는 일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서로의 일손을 돕는 공동체 행사이기도 했다.

입동 무렵에는 햇곡식으로 팥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떡을 곳간과 마루, 외양간 등에 놓고 집안의 평안과 풍년, 가축의 건강을 기원했다. 고사를 마친 뒤에는 떡을 이웃과 나눠 먹고 농사에 힘쓴 소에게도 음식을 가져다줬다.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그 결실을 주변과 나누려는 마음이 담긴 풍습이다.

치계미는 입동과 동지, 섣달그믐 무렵 마을 어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풍습이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마련해 어른들을 모시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다지려 했던 전통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입동에는 날씨와 자연의 변화를 살펴 겨울 추위와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입동 보기도 행해졌다. 입동 날이 추우면 그해 겨울도 추울 것이라고 여겼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리잎의 모양 등을 보고 농사의 풍년 여부를 가늠하기도 했다.



▲ 입동을 맞아 김장하는 모습

오늘날 입동은 겨울을 앞두고 일상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난방 시설을 확인하고 따뜻한 옷과 음식을 준비하는 일부터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일까지,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는 다양하다. 입동의 여러 풍습에는 계절의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와 수확에 대한 감사, 이웃과 나누는 마음이 담겨 있다. 추위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갈 수 있는 입동의 의미다.

표진아 기자 treasureshine29@gmail.com

인터뷰 1



# 창의적인 콘텐츠와 출판의 미래를 이끄는
## 미디어출판학과 학회장 추윤서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출판학과 학회장 추윤서입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책 제작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계기로 미디어출판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책 한 권이 독자 손에 쥐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직접 배우며 출판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출판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출판학과는 3년제로 출판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웁니다. 실무 중심의 편집 디자인부터 기획까지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어 경쟁력 있는 학과입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축제에서 학생회 친구들과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북스킨라빈스 31'과 '북 클리닉' 같은 부스를 직접 운영했고, 최우수상이라는 값진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함께 고생해 준 학생회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회장으로서 리더십과 소통에 대해 깊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 미디어출판학과 학회장 추윤서

**미디어출판학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동기들과 진행한 팀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고민할 때와는 달리,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함께 해냈다는 뿌듯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다듬고, 힘들었지만 서로 웃으며 공유했던 시간은 재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출판학과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전공 지식을 넘어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소중한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과 학우들 모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기자 ydd211112@gmail.com

인터뷰 2



# 세무회계 전문 인재를 양성하다
## 세무회계학과 학회장 육재명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학과 14대 학회장 육재명입니다.

**세무회계학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학과는 회계 원리와 세법 등 기초 과목부터 세무회계 관련 전공 지식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수업과 교수님의 진로 지도, 일학습병행 등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금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세무·회계 분야뿐 아니라 기업의 회계 및 재무 관련 직무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용마대동제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회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아이디어 선정부터 준비물 마련, 부스 운영까지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계획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지만, 부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부스에 찾아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함께 하나의 목표를 이뤄낸 경험이라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 세무회계학과 학회장 육재명

**세무회계학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더존 ICT 그룹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업을 방문해 업무 환경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전공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전공 공부를 해 나가는 데에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공부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 1학년이고 학회장으로서 배우는 만큼,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며 추억을 쌓고 싶습니다. 학생분들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후회 없이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